

강경애 단편집 4

차례

1. 간도야 잘있거라 ————— 3
2. 고향의 창공(蒼空) ————— 13
3. 두만강 예찬 ————— 17
4. 불타산 C군에게 ————— 21
5. 이역(異域)의 달밤 ————— 23

1. 간도야 잘 있거라

1932년 6월 3일 아침.

씻은 듯이 말게 개인 하늘가에는 비행기 한 대가 프로펠러의 폭음을 발사하면서 배회할 때 용정촌을 등지고 떠나는 천도열차(天圖列車)는 외마디의 이별 인사를 길게 던졌다.

나는 수많은 승객 틈을 빼기고 자리를 잡자마자, 차창을 의지하여 돌아보니 얼씬얼씬 멀어져가는 용정촌.

그때에 내 머리에 얼핏 떠오르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던 작년 이때다.

그때에 용정 시가는 신록이 무르익은 기로수 좌우 옆으로 청천백일기(靑天白日期)가 멋있게 나부끼었고, 붉고도 흰 벽돌집 사이로 흘러나오는 짱짱이의 단조로운 멜로디는 보랏빛 봄 하늘 아래 고이고이 흠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로(街路)에서 헤매이는 걸인들의 이 모양 저 모양. 그들에게 있어서는 봄날도 짱짱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역두(驛頭)에서 흠어지는 낯선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그 손을 벌릴 뿐, 그 험상궂은 손!

나는 이러한 옛날을 그리며 아까 역두에서 안타깝게 내 뒤를 따르던 어린 거지가 내 앞에 보이는 듯하여 다시금 눈을 크게 떴을 때, 차츰 멀어가는 용정 시가 위에 놀이 뜰 비행기, 그리고 늦은 봄바람에 휘날리는 청홍흑백황(靑紅黑白黃)의 오색기가 백양나무숲 속으로 번듯거렸다.

차창으로 나타나는 논과 밭, 그리고 아직도 젖빛 안개 속에 잠든 듯한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은 마치 꿈꾸는 듯, 한 폭의 명화를 대하는 듯, 그리고 아직도 산뜻한 아침 공기 속에 짙은 풀 냄새와 함께 향긋한 꽃 냄새가 코밑이 훈훈하도록 스친다.

밭둑 풀송쿠리 속에 좁쌀꽃은 발갱게 노랗게 피었으며, 그 옆으로 열을 지어 돌아다니는 조깅은 잎새를 두 갈래로 벌리고 벌겍게 타오르는 동견 하늘을 향하여 햇빛을 받는다.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 젖가슴을 헤치듯이 그렇게 천진스럽게 귀엽기! 어디선가 산새 울음 소리가 짹짹하고 들려온다. 쿵쿵대는 차바퀴에 품겨 들리는 듯 마는 듯.

“어디 가세요!”

하는 소리에 나는 놀라 돌아본 어떤 트레머리 여학생이었다. 한참이나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서울까지 갑니다. 어디 가시나요.”

혹시 경성까지 동행하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문하였다.

“네, 저는 회령까지 갑니다.”

생긋 웃어 보이는 입술 속으로 하얀 이가 내밀었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 동행합시다.”

마침 나와 맞은 편에 낮은 어린 학생이 졸다가 옆에 앉은 일인(日人)에게로 쓰러졌다.

“아라(어머나)!”

내 옆에 앉았던 여학생은 날래게 일어나 어린 학생을 붙들어 앉히며 유창한 일어로 지껄인다. 일인은 어린 학생을 피하여 앉다가 이끈 여학생에 끌려 어린 학생을 어루만지며 서로 말을 건네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귓결에 들으며 다시금 창 밖을 내어다보았다. 금방 내 앞으로 다가오는 밭에는 어쩐지 조깅을 발견할 수가 없어 나는 자세히 둘러보았을 때 “지금 촌에서는 밭갈이를

못해서 목히는 밭이 많다지. 올해는 굶어죽을 수 났다.”
하던말이 내 머리를 쪼그라들게 올려 주었다. 나는 뒤로 사라지려는
그 밭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온갖 잡풀이 얽혀있을
뿐이었다. 그때에 내 가슴은 마치 돌을 삼킨 것처럼 멍청함을
느꼈다. 따라서 농부들이 저 밭을 대하게 되면 어떨까, 얼마나
아까울까. 얼마나 애수할까, 흙의 맛을 알고 그 흙에서 매일
달라가는 조식의 자라나는 그 재미, 그야말로 농부 자신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들이 저 밭을 대할
때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 무엇이 들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얼핏 이러한 노래가 떠올랐다.

지금은 봄이라 해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 해도
이 땅에는 봄인 줄 모를네 모를네

안개비 오네 앞산 밑에 풀이 파랗소
이 비에 조식이 한치 자라고
논둑까지 빗물이 가득하련만

아아 밭갈이 못했소
논갈이 못했소
흙 한 줌 내 손에 못 쥐어 봤소

나는 이 노래를 금방이라도 종이 위에 옮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바스켓을 뒤졌으나 종지도 없고 붓도 없어서 그만 꼭
참고 보느라 없이 획돌아보니 옆에 앉은 그 여학생은
『슈후노도모(主婦之友) [주부지우]를 들고 들여다본다.
일인은 끊임없이 여학생에게 시선을 던지며 병긋병긋 웃고
있었다. 마침내 일인은,

“회령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는 가볍게 머리를 들며,

“도립병원에 있습니다.”

이 말에 나는 그가 간호부인 것을 직각하며 다시금 그를 쳐다보았을 때, 어디선가 그의 몸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약 냄새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아까 내 맞은편에서 즐던 어린애는 어느덧 여학생 곁으로 와서 앉아서 물끄러미 책을 들여다본다

“글쎄 이에 혼자서 상삼봉(上三峰)까지 간다지요.”

그는 어린애를 가리키면서 나를 쳐다본다. 나도 그 말에는 놀라서 그애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둥글둥글한데다 눈이 큼직한 보암직스러운 사내였다.

“너 몇 살이냐?”

그는 머리를 숙이며,

“일곱 살이에요.”

“응 용쿠나, 너 혼자 어디 가니?”

“삼봉 가요.”

“응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냐?”

어린애는 우물쭈물하며 말끝이 입술 속으로 숨어 들고 있다.

“이 애 똑똑히 말해.”

그 여자는 어린애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상냥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무심히 앉았을 때,

“이 애가 울어!”

그 여자는 어린 학생의 머리를 들며 들여다본다. 나도 얼핏 그편으로 보았을 때 그 검은 속눈 사이로 커단 눈물이 똑똑 흘렀다. 그때에 나는 그 애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였음을 짐작하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물었는가, 내가 짐작하는 그대로 참으로 그 애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

어린것의 가슴이 얼마나 내 물음에 아팠으랴 하고 생각하면서,
“이리 온, 이거 봐.”

그 여자의 손에서 『슈후노도모』를 옮겨 내 무릎 위에 놓으며 표지의 그림을 내보였다. 어린애는 눈물을 씻으며 슬금슬금 바라볼 때 여러 사람의 시선은 어린애에게로 집중됨을 나는 느꼈다.

어느덧 차는 도문강(圖們江) 안참(岸站)에 이르렀다. 중국인 순경에게 나는 일일이 짐 조사를 받은 후, 어린애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벌써 차는 슬슬 미끄러졌다.

옆의 여자는 내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도문강이에요, 에그 저 고기 봐!”

말 마치기가 무섭게, 나는 머리를 돌려 굽어보았다.

강변 좌우로 휘늘어진 버들가지에 강물 속까지 푸르렀으며 그 속으로 헤엄쳐 오르는 금붕어 은붕어를 보고, 나는 몇 번이나 하나, 둘, 셋, 넷하고 입 속으로 그 수를 헤이다가 잊어버렸는지.

“고기 고기도 있어요!”

조그만 손을 쭉 내밀어 가리키는데, 나는 어린애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네게도 봐니, 어디 있어, 어디 가리켜 봐 또.” 어린애를 쳐다보았다.

그는 무심코 이런말을 했다가 내가 채쳐 묻는 곁에 그만 부끄러운 생각이 났던지 머리를 숙이며 잠잠하다. 순간 나는 그 애가 아버지 어머니 틈에서 자라지 못한 불쌍한 애였음을 확실히 알았다.

강을 사이로 보이는 조선땅! 산색(山色)조차 이편과는 확연히 다르다. 산봉이 굽이굽이 높았다 낮아지는 곳에 끊임없이 아기자기한 정서가 흐르고 기름이 듣는 듯한 떡갈나무와 싸리나무는 비오는 날 안개 끼듯이 산봉 끝까지 자욱하여

푸르렀다.

차가 상삼봉역에 닿자마자 내 곁에 앉았던 어린애는 냉큼 일어났다. 그 뒤를 따라 나도 바스켓을 들고 일어나며,

“이젠 다 왔지 정 네 이름 무어냐?”

차간에서 정들인 이 어린것의 이름도 모르고 보내는 것은 껍도 섭섭했다. 어린애는 잠잠히 차에서 내려서며,

“순봉이.”

“응 순봉이, 순봉아 잘 가거라.”

나는 해관검사실(海關檢查室)로 들어가며 돌아보았을 때 순봉이는 개찰구로 나가며 다시 한번 이권을 돌아보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만다. 어쩐지 나는 무엇을 잃은 듯한 느낌으로 그 애의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삼십분 후에 우리는 상삼봉역을 출발했다. 간호부와 나는 순봉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시금 순봉의 그 검은 눈을 그려보았다.

형사는 차례로 짐 뒤짐을 하며 우리 앞은 앞으로 오더니 역시 내 짐이며 몸을 뒤져보고 몇 마디 말을 물어본 후 간호부에게로 간다. 그는 언제나 삼삼한 태도와 유창한 일어로 대하여준다.

차는 도문장을 바른편에 끼고 빙빙 돌았다. 실실이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넘쳐 흐르는 도문강물,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저 도문강물, 네 가슴 위에 뜻있는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이 몇몇이 비쳤으며 의분이 떨리는 그들의 몸을 그 몇 번이나 안아 건네었느냐.

숲속으로 힐끔힐끔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움막은 작년보다도 그 수가 훨씬 늘어 보였다. 그 속에서도 어린애들이 소꿉놀이를 하며 천진스럽게 노는 꼴이 보인다.

나는 이권으로 머리를 돌리니 길회선(吉會線) 철도공사 인부들이 까맣게 쳐다보이는 석벽 위에 귀신같이 발을 붙이고 돌을 쪼아내린다. 나는 바라보기에도 어지러워서 한참이나 눈을

감았다. 다시 보면 볼수록 아찔아찔하였다. 아래 있는 인부들은 굴러내리는 돌을 지게 위에 싣고 한참이나 이컨으로 돌아와서 내려놓으면 거기에 있는 인부들은 그 돌을 이를 맞추서 차례차례로 쌓아 올라가고 있다.

나는 차안을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곳을 주시하는 사람조차 없는 듯하다. 모두가 양복장이었으며 학생이었으며 숙녀였다. 우선 나조차도 저 돌 한 개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 아니었더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 소위 인테리층 나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누구보다도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으로 입고 무엇으로 먹고 이렇게 살아왔다.

저들의 피와 땀을 사정없이 긁어모아 먹고 입고 살아온 내가 아니냐! 우리들이 배운다는 것은, 아니 배웠다는 것은 저들의 노동력을 좀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더냐!

돌 한 개 만져보지 못한 나, 흙 한 줌 쥐어보지 못한 나는 돌의 굳음을 모르고 흙의 보드라움을 모르는 나는, 아니 이 차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호사스럽게 차안에 앉아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 내가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때껏 배운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붓끝에 썩워지는 것은 모두가 이런 종류에서 좁쌀 한 알만큼, 아니 실오라기만큼 그만큼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저 한판에 박은 듯하였다.

학생들이여, 그대들의 연한 손길, 그 보드라운 흰 살결에 태양의 뜨거움과 돌의 굳음을 맛보지 않겠는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튼튼한 일꾼, 건전한 투사가 되지 않으려는가.

돌에 치여 가로세로 줄진 그 손이 그림다. 그 발이 그림다. 햇볕에 시커멓다 못해 강철과 같이 굳어진 그 뺨이 그림다!

얼마나 믿음성스러운 손이라. -(『동광』, 1932.8)

이런 생각에 잠긴 채 기차는 어느덧 회령에 도착하였다. 동행하던 여성을 따라 역에 내리니 역두에는 출영인(出迎人)으로 잡답(雜踏)하였다. 웬일인가 하여 휘휘 돌아보니 맨 앞에 달린 화물차 속에서는 군인들이 꾸역꾸역 몰려나온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훈춘(琿春)지방에 출정하였던 군대라고 한다. 그러자 이견 뒷객차에서는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밀려나온다. 이들은 조선을 거쳐 중국 본토로 가는 간도의 피난민이다. 나는 한참이나 멍하니 그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바라볼 때 무어라고 말을 옮길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얼결에 구외(構外)로 밀려 나왔다. 군대는 행렬을 정돈하여 유량(劉嘯)한 나팔소리에 맞춰 보무당당(步武當當)히 군중 앞으로 걸어간다. 우렁차게 일어나서 만세소리! 그 중에서도 천진한 어린 학생들의 그 고사리 같은손에 잡혀 흔들리는 일장기(日章旗)! 그 까만 눈동자!

햇볕에 빛나는 총검에서는 피비린 냄새가 나는 듯, 동시에 XX당의 혐의로 무참히도 원혼으로 된 백면장정(白面壯丁)의 환영이 수없이 그 위를 달음질치고 있었다. 나는 발길을 더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동행 여성은 내 손을 쥐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안녕히 가세요.”

겨우 입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나는 그의 사라지는 뒷꼴을 바라보며 아차 이름이나 서로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였다.

수없는 피난민들은 군대의 행보하는 것을 얼빠지게 슬금슬금 바라보며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듯이 그들의 몸을 쪼그린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생명의 보장이나마 얻어볼까 하여 누더기 보따릴 짊어지고 방향도 정(定)치 못하고 밀려나오는 그들 아니 그들 중에는 백의 동포도 얼마든지 섞여 있다.

오후 여섯시에 기차는 회령역을 출발하였다.

경편차(輕便車)보다는 마음이 폭 놓여 차창을 의지하여 밖을 내어다보았다. 마침 형사들이 와서 지분거리기에 그만 눈을 꼭 감고 자는 체하던 것이 정말 잠이 들고 말았다. 이따금 잠결에 눈을 들어보면 높고 낮은 산봉(山峰) 위에 저녁노을빛이 불그레하니 얽혀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직도 이른 새벽. 검푸른 안개 속으로 이렘뿔이 나타나 보이는 솔포기며 그 밑으로 흰 거품을 토하며 삭 내밀치는 동해 바닷물, 그리고 하늘에 닿은 듯한 수평선 저쪽으로, 꿈인 듯이 흘러내리는 한두날의 별, 살았다 꺼진다.

벌써 농부들은 팽이를 둘러메고 논둑과 밭머리에 높이 서 있었다. 금방 이양(移秧)한 벼모는 시선이 닿는 데까지 푸르러 있었다.

이따금씩 숲 사이로 보이는 초라한 초가집이며, 울바자 끝에 넉 흰 빨래며, 한가롭게 풀 뜯는 강변에 누운 소의 모양이 얼핏얼핏 지나친다.

잠시나마 붉은 구릉(丘陵)으로 된 단조무미(單調無味)한 간도에 살던 나로서는 이 모든 경치에 취하여 완전히 선경(仙境)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큰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를 토하고 있는 것은 장차 무엇을 말함일까.

대자본가의 잠식(蠶食)이 그만큼 맹렬히 감행되고 있는 것은 파노라마 모양으로 역력히 보인다.

기차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산굽이를 돌고 터널을 지나 숨차게 경성을 향하여 달음질친다. 그러나 나의 마음만은 반대 방향으로 간도를 향하여 뒷걸음친다.

아, 나의 삶이여.

전란의 와중에서 갈 바를 잃고 방황하는 가난한 무리들!

그나마 장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오직

노유부녀(老幼婦女)만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도시를 향하여
피난해 오는 광경이 다시금 내 머리에 떠오른다.

부모형제를 눈뜨고 잃고도 어디 가서 하소 한 마디 할 곳이
없으며 그만큼 악착한 현실에 신경이 마비되어 버린 그들!
눈물조차 그들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직 그들
앞에는 죽음과 기아(飢餓)만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도여! 힘있게 살아다오! 굳세게 싸워다오! 그리고
이같이 나오는 나를 향하여 끝없이 비웃어다오!

기차는 원산을 지나 삼방(三防)의 험산(險山)을 바라보며
여전히 달는다.

2. 고향의 창공(蒼空)

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잡힌다. 그 동안 고향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것이다. 시가지가 좀더 변화했을 것이라든지 사릿골[四里洞], 오릿골[五里洞][오리동]에 빈민이 그 수를 더했을 것이라든지 더구나 이웃에서 주소로 대하던 맘 좋던 할머니들이며, 자루 같은 젖통을 휘두르면서 입에 침기가 없이 아기자랑으로만 일을 삼는 젊은 부인들이며, 아리랑타령을 제법 멋들게 부르며 우리집 앞으로 지나다니던 나무하는 아이들까지도 내가 이제 고향에 가면 만나보지 못할 얼굴들이며 알아보지 못할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항상 바라보고 위안을 얻으며 격려를 받던 그 하늘만은 의연할 것을 머리에 그리며 나는 이 붓을 옮긴다.

두견산 밑에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낡은 집이 우리집이다. 그 집은 지은 지가 몇십 년이나 되는지 모르나 어쨌든 벽하나 바르지 못하고 기둥 한 개 성하지 못하다. 비 오는 날이면 기둥 썩은 냄새가 물큰하게 난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손질을 잘하셔서 일견 새집 같고 안팎이 정결하다.

안방은 세우고 윗방에 우리 모녀가 있었다. 윗방은 더구나 천정이 얇아서 키 큰 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게 된다. 벽은 쓰다가 버린 원고용지로 바르고 뒷문 편으로 다 낡은 옷케들이 킁킁하게 놓여 있으며 앞문 앞에는 석유상자 책상이 푸른 보에

덮여 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빌려온 신문들이며 책권들이 언제나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

처마 끝에 참새들이 조잘거리고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만든 듯한 앞문에 햇빛이 따스하게 드리우면 어머니는 이영초 걱정애 부산하시다. 그런지 며칠 후에는 기어이 이영초를 마련해 가지고 뒤뜰에서 부스럭부스럭소리를 내시면서 이영을 엮으신다.

문예란 말만 들어도 나는 입을 헤하고 벌리던 그때라 신문이나 잡지권을 애써 얻어들여 가지고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붙잡고 있다. 어머니는 나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하셔서 항상 꾸지람을 하시며 일감을 내놓아 나로 하여금 책을 보지 못하게 한다. 나는 간간이 어머니와 대항을 하다가도 못 이겨서 잡히지 않는 바늘을 쥐고 일을 하는 체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시면 옷감을 구석으로 밀어던지고 또다시 책을 든다. 더구나 저렇게 이영을 엮으실 때는 어머니가 용이해서는 방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므로 나는 마음을 놓고 누워서 책을 본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야말로 눈에 비쳐지는 문구란 문구는 모를 것 밖에는 없다. 어떤 때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도 머리에 남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재독을 한다, 삼독을 한다, 내지 오류차를 거듭해도 점점 더 아득하다. 나는 기가 있는 대로 치밀어서 벌떡 일어나 미친년같이 온방을 휩쓸다가도 못 견디어서 밖으로 튀어 나간다.

어머니는 아무 불평이 없이 만족한 얼굴로 이영을 엮으시다가 나를 보고,

“왜 또 나오니, 좀 지접(地接)을 해서 일을 하지”
걱정스러이 나를 쳐다볼 때 나는 통곡을 하고 싶다.

“바느질이나 하면 뭘해요!”

나는 톱 쏘는 듯이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계집아이가 바느질해야지 뭘 한단 말이나

어머니는 손에 피가 나도록 일만 하는데 넌 놀려고만 하니, 너도

이젠 그만하면 썸 좀 들어라.”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신다. 나는 어머니의 저 한숨소리만 듣게 되면 언제나 가슴이 찌르르 울리면서 마음이 죄송해진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릴 생각이 부쩍 일어난다. 나는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섰다가 어머니 곁으로 가서 이영초를 한 줍씩 집어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약간씩 붙은 나락을 훑어서 바가지에 담는다.

“손끝이 몹시 아픈데 어디 좀 봐라.”

나는 내미는 어머니의 손을 쥐고 들여다보니 다섯 손끝에 빨갱게 피가 배었다.

“아이 어머니, 피가 나올래. 내 좀 해 응, 저리가, 어머니는”

어머니는 쓸쓸히 웃으시면서,

“네까짓 것이 뭘하냐.”

어느덧 모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

“어서 들어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니는 목이 메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부스스 일어났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저 두견산, 우리 인간사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푸른 옷, 붉은 옷을 찬란히 입고 올라라 올라라 하늘 끝까지 푸르러 미의 극치를 완연히 들여보이고 있다. 산 넘어 새소리 꿈같이 들려오고 미풍에 산 향기 그윽하다. 나는 이 장관에 취하여 잠깐 섰다가 방으로 들어오면 방안은 굴 속 같고 무슨 냄새가 코를 버티운다.

나는 겨드랑에 땀을 척척히 느끼며 앞문을 탁 열어제친다.

문이 좁아라 하고 밀려드는 저 하늘, 내 조그만 책상에 말없이 미소를 던져주는 저 하늘, 어디서 보던 하늘보다도 밝고 다정하다. 나는 어느덧 책을 들며 ‘읽자! 쓰자!’ 하고 부르짖을 때 내 머리 속은 저 하늘같이 맑아지며 그렇게 푸른

희망으로 내 조그만 가슴은 터질 듯하다.

지금도 간도에 있는 나, 때때로 하늘을 우르러 내 고향을
그린다. 조그만 우리집을 폭 덮어줄 그 하늘, 문마다 가득 찼 그
하늘

3. 두만강 예찬

두만강이라면 조선 · 만주 · 러시아의 국경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역사나 재미있는 전설 같은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소양이 없는 나로서는 극히 난처한 일이다. 더욱 두만강이라면 우리로서는 예찬보다는 원한이 많을 것이다. 좌우간 예찬이 될지 원한이 될지 생각나는 대로 붓을 옮겨보자.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 일천오백여 리나 되는 장강이다. 두만강수의 분량은 조선에서 흐르는 물의 분량보다도 만주에서 흐르는 분량이 더 많다. 간도 용정촌으로 흐르는 해란강이며 국자가의 연길강, 백초구의 백초구강, 훈춘의 훈춘강 등이 고려령(高麗嶺)을 넘어 두만강에 합류된다. 그리고 두만강이란 이름도 만주어에서 나온 이름이니 즉 도문색금(圖門索禽)이란 만주어에서 색금을 떼고 도문만을 붙여 두만이라고 하였다. 도문색금이란 뜻은 새가 많이 사는 골자기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 그런 것을 보아 두만강 일대에는 새가 많이 깃을 들이고 있던 모양이다. 역사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금국(金國) 당시에 천조제(天祚帝)가 신하를 많이 데리고 평사냥을 하곤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사천여 년 전에 만주는 부여족이 개척하였다. 부여족에서 갈라진 읍루족이 이 근방에서 살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일어나자 여기에는 발해 동경인 솔빈부(率賓府)가 되었으며 요나라가 흥하면서 이곳을 동변성(東邊城)이라 하였다.

다음에 요나라를 치고 금나라가 들어서면서 여기를 동변도라 하여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평사냥을 하는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 몽고족이 원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중원에 호령하자 여기서 동변도 총독부를 두게 되었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되면서 회령(會寧)이라 하였다. 지금의 회령이란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회령에는 모린위(毛麟衛)라는 군대주둔소를 두게 되었으며 여전히 이 지방에는 부여족에서 내려온 여진족이 살고 있었다. 명국이 망하고 청국이 성하자 그때 조선에는 이조 세종 33년이였다. 세종왕은 신하인 김종서를 이 지방에 보내어 여진족을 토벌한 후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였다. 그 전에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일직선을 그어 이남이 조선이였다. 그러던 것이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두만강이 국경이 되었다. 다이에 여진족은 눈으로 차마 보지 못할 압박을 받으며 죽지 못하여 살았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권력자 앞에 그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였다. 불교를 강제로 믿게 하는데 너희들은 가족을 데리고 집에서 믿어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믿는 불교를 집에서 믿게 되었다. 이른바 재가승(在家僧)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항복의 기념으로 지은 종성(鐘城)에 있는 수항루(受降樓)를 그들은 얼마나 원망하였을까. 그리고 수항루를 끼고 굽비굽비 감돌아 내리는 두만강을 얼마나 넘고 싶었을까. 그러나 국경의 수비가 엄하니 어찌 감히 넘으랴. 달 밝은 밤 그들은 고달픔에 못 이겨 아마도 두만강에 몸을 맡겼을 것이다.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경 이때로부터 두만강을 넘는 페이지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조선은 청국과의 국제문제를 두려워하여 국경을 넘는 자에게는 용서 없이 처치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통상조약이 성립되어 회령에 개시장(開市場)을 열게 되었으며, 두만강

이북으로부터 간도 국자가 근방까지는 완충지대라 하여 통상(通商)시에만 인마가 빈번할 뿐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완충지대는 공지이었다. 그러므로 두만강 일대에 있는 여진족이야말로 이 자유천지를 날마다 밤마다 넘겨다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기사(己巳) 경우(庚午)년에 무서운 흉년을 만난 백성들은 이제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달렸으니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두만강을 넘기 시작하였다. 죽이기로 당치 못할 것을 안 정부에서는 나중에는 방임하여 버렸다. 그러니 백성들이 막 쓸어 간도로 나오게 되었다.

지금의 간도라면 왕청, 연길, 화룡, 훈춘 이 4현을 말함이니 이 넓은 지광(地廣)에 조선인이 사십만이다. 이 사십만은 누구나 두만강과 인연이 깊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두만강에 있다. 종성 대안(對岸)인 두만강 가운데는 간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다. 그 섬은 아주 옥토이어서 곡식을 심으면 조선땅에서 나는 곡식보다 배나 더 나곤 하였다. 그러니 백성들은 몰래 건너가서 농사를 짓곤 하였다. 그러나 강국인 청국이 무섭고 국경의 수비가 엄하여서 그들은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밤중에 백성들이 모여서 간도를 조선쪽으로 옮겨오자고 의논이 되었다. 그들은 즉시 두만강으로 나가서 조선 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만주 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로 옮기기 위하여 흙으로 메워서 종내는 간도를 조선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도 종성에 가보면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이렇게 간도를 조선땅으로 만들기 전에 몰래 이 섬에 와서 농사 짓는 것을 간도농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간도가 아니라도 두만강을 건너 농사 짓는 것을 모두 간도농사라고 하였다. 지금의 간도란 두만강에서 나온 말이다. 이 전설을

미루어 간도는 두만강이 낳아 놓은 듯싶다. 간도의 어머니인
두만강.

누구든지 간도를 알아보려고 이 두만강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두만강을 대하기는 1931년 봄 바야흐로 신록이
빛나는 그때이었다. 나는 차창에 의지하여 두만강을 바라보았다.
신록이 무르익은 버들숲을 끼고 흐르고 흐르는 저 강수(江水)!

나는 문득 이런 노래를 생각하였다.

여인은 애기 업고
사내는 쪽박 차고
지친 다리 끌면서
강가에 섰소.

강물에 발 담그며
돌아다 보니
강변엔 봄이오.
버들가지 푸르렀소.

강물은 무심히도
흐르고 흐르는데
애기는 울고 울고
석양은 기오.

아직까지도 이 노래가 내 머리에서 감돌다가 펜을 드니 술술
달려 나온다.

-(『신동아』, 1934.7)

4. 불타산 C군에게

그리운 고향

두어 번 준 편지는 받아 읽었소. 허나 워낙 붓 들기를 싫어하는 나요.

더구나 답서 같은 것은 염직해서는 아니하는 괴별한 버릇이 있는지라 이때까지 한 장의 글월을 아끼었소만 그렇다고 결코 군을 잊은 것은 아니었소. 고향의 그 달을 생각하였고 또한 군의 얼굴을 머리에 그려보았소. 그러니 이 붓을 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소 그려.

빠르오. 군과 내가 두견산에 올라 멀리 불타산을 바라보며 문담(文談)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되었고 그려. 그동안 군은 몇 번이나 두견산에 올라 그 달을 바라보았소? 군! 나는 이 붓으로 일년 전 그때를 그려보려 하오.

우리들이 가지런히 서서 두견산을 향하여 올라가오. 긴 풀들이 옷가를 스쳐 실실 소리를 내었고 짙은 풀내를 띄운 무르익은 흙내가 구수하였소. 우리들의 발끝이 잔디 속에 포근포근 파묻히매 꼭 시냇물 속에 들어선 듯한 감촉이었고 그곳에 벌레소리 명주실끝같이 오리오리 뿔뿔히었으며 메두리 푸르릉 날았소.

우리들이 바위 위에 올라앉으니 불타산은 여전히 높았고 들은 휘영청 멀었소.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들의 땀 배인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데 기운이 버쩍 났소. 돌아보니 다방술 포기가

자욱히 우리를 둘러쌌으며 그리로부터 풍기는 찬바람을 우리는
냉수 마시듯 하였소.

금방 해가 진 뒤라 그런지 멀리 불타봉에는 붉은 빛이
은은하였고 산밑으로 뽕오얀 안개가 몽실몽실 피어오르오.
그곳엔 아마 온갖 새들이 나래를 접고 포근히 잠들어 있을
듯하였소. 숲속으로 흐르는 시냇물만이 돌돌 소리를 낼 게요. 이
모든 것을 폭 덮어 나간 하늘엔 흰 조개 같은 구름장이 오글오글
엮드려 있고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꼭 호수와 같소. 까뭇거리는
해변가에 섰는 듯, 속을 뻘했소.

대지는 검어가오. 불타산 아래로 과도같이 넘실거리는 오곡이
가슴이 턱 나오게 가득 들어차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의 흰
옷자락이 나비같이 날고 있소. 시커먼 벌을 뚫고 흐르는 저
시냇물은 어떤 이국에 가는 길인가 도 싶오오.

어느덧 시가에는 전등불이 흩어져 화단인 양 싶었고 하늘엔
별들이 박꽃처럼 피어나오. 깜짝 놀라게스리 컴컴한 저 동산,
숲속은 환하였소. 숲속에 반쯤 가리인 그 달은 부끄러워 아미를
숙인 처녀의 얼굴 같고 어찌 보면 오래 그림던 벼의 얼굴을 대한
듯하오.

달이야 여기서도 볼 수 있건만 내 고향 뒷숲에 숨어 오르는 그
달 같겠소? 달려가면 쫄 듯하고 소리치면 대답이 있을 듯한 그
달! 그 빛이 희고 맑음시오 서리같이 찬 듯하건만 오히려 다정한
감을 갖게 하고, 그 모양 둥글어 모짐이 없음시오 무심할
듯하건만 온갖 정서를 한 가슴 폭 담은 그로다. 군은 견디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 휘파람을 불어질 듯 불지 않았소.

C군 여기까지 쓰고 보니 붓끝이 딱 막히오. 나머지 생각나는
것이 있거들랑 이 벼의 부족한 글을 보충해주오.

C군의 건강을 빌며 그만하오.

-(『동아일보』, 1936.6.30.)

5. 이역(異域)의 달밤

1933년도 저물었다.

이 밤의 교묘한 월색은 여전히 나의 작은 몸뚱어리를 눈 위에 뚜렷이 던져준다. 두 달 전에 저 달은 내 고향서 보았건만……?

이곳은 북국. 북국의 밤은 매우 차다. 저 달빛은 나의 뺨을 후려치는 듯 차다. 그리고 사나운 바람은 몰려오다가 전선과 나뭇가지에 걸려 확확 소리 쳐 운다. 그 소리는 나의 가슴을 몹시도 흔들어준다. 때마침 어디서 들려오는 어린애 울음 소리…… 나는 문득 이런 노래가 생각난다.

이 밤에
어린애 우네
밤새껏 우네

아마 뉘 집 애기
빈 젖을 빠나부이
밤새워 빠나부이

못 입고 못 먹는 이 땅의 빈농들에게야 저 바람같이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으랴! 사의 마신이 손을 벌리고 덤벼드는 듯한 저 바람! 굶주린 저들은 오직 공포에 떨 뿐이다.

이곳은 간도다. 서북으로는 시베리아, 동남으로는 조선에 접하

여 있는 땅이다. 추울 때는 영하 40도를 중간에 두고 오르고 내리는 이 땅이다.

그나마 애써 농사를 지어 놓고도 또다시 기한(飢寒)에 울고 있지 않는가! 백미 1두(斗)에 75전, 식염 1두에 2원 20전, 물경 백미값의 3배! 이 일단을 보아도 철두철미한 XX수단의 전폭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가정이 공어 맹호야(苛政 恐於猛虎也 - 가렴주구하는 정치가 사나운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 라던가? 이 말은 일찌기 들어왔다.

황폐하여 가는 광야에는 군경을 실은 트럭이 종횡으로 질주하고 상공에는 단엽식(單葉式) 비행기만 대선회를 한다.

대산림으로 쫓기어 XX를 들고 XXXXXX하는 그들! 이 땅을 싸고도는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저 극단과 극단으로 중간성을 잃어버린 이 땅이다.

인간은 1937년을 목표로 일대 살육과 파괴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 타협, 평화, 자유, 인도 등의 고개는 벌써 옛날에 넘어버리고 지금은 제각기 갈 길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군축(軍縮)은 군확(軍擴)으로, 국제 협조는 국제 알력으로, 데모크라시는 파쇼로, 평화는 전쟁으로…… 인간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궤도를 여실히 밟고 있다.

이 거리는 고요하다. 이따금 보이느니 개털모에 총을 메고 우두커니 섰는 만주국 순경뿐이다.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마차의 지르릉 울리는 종소리…… 찬 달은 흰 구름 속으로 슬슬 달음질치고 있다. 저 달을 보는 사람은 많으련마는 역시 환경과 입장에 따라 느끼는 바 감회도 다를 것이다.

붓을 들고 쓰지 못하는 이 가슴! 입이 있고도 말 못하는 이 마음! 저 달 보고나 호소해볼까. 그러나 차디찬 저 달은 이 인간사회의 애닦은 이 정황에 구애되지 않고 구름 속으로 또 구름 속으로 흘러간다.

대자연은 크게 움직이고 있다.

33년 11월 용정촌에서

-(『신동아』, 1933. 12)